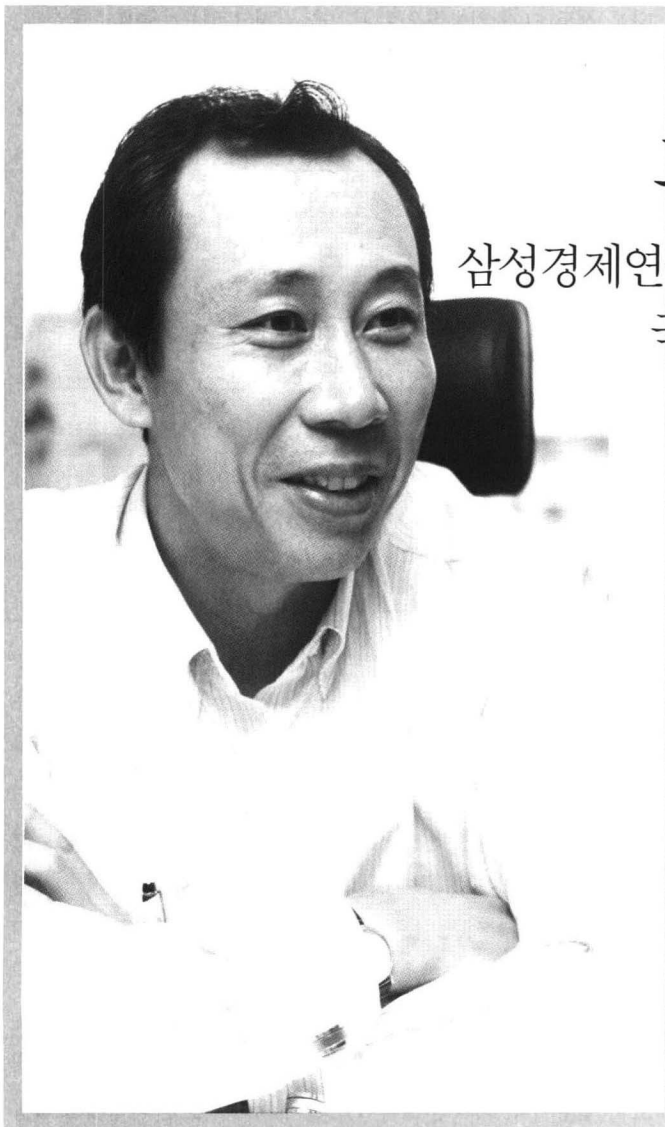


# “인문서 펼치면 고객 마음이 보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CEO 조찬 북클럽 ‘메디치21’  
국내 굴지의 CEO들 매월 책 모임...

강신장 지식경영센터장,  
“명저 읽고 토론 · 지식 공유”



CEO의 마음을 도둑질한다...

CEO 지식콘텐츠 SERICEO의 독서 커뮤니티로 출발

삼성경제연구소 지식경영센터장 강신장 상무는 상의 가슴에 달린 주머니에서 독특한 라이터를 꺼냈다. 언뜻 보면 평범한 라이터인데 손으로 흔드니 구슬 소리가 들린다. 뒷면에 로또 번호추출기를 달고 있는 이른바 ‘로또 라이터’였다.

“‘대박’은 내고 싶지만 번호 고르길 귀찮아하는 사람들에게 안심 맞춤 상품입니다. ‘흔들면 이루어진다’는 문구까지 달아줬어요. 개발자가 누구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미충족 욕구, 잠재된 욕구를 잘 읽어냈더군요. 얼마나 기쁠까요. (웃음)”

강 상무는 사람들 내면의 감춰진 욕구를 잘 읽어낸 이 라이터를 CEO 모임만의 상징물로 변신시키고 싶었다고 한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열린 앞면에 ‘마음도둑클럽 SERICEO’란 문구를 달아 SERICEO 멤버들에게 나눠줬다. CEO들이야말로 로또 라이터 개발자처럼 고객 마음 속에 담긴 미충족, 잠재 욕구를 훔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CEO들이 고객의 마음을 읽고 훔쳐야 하듯 CEO들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강 상무는 하루 종일 결재, 회의서류 등 폐이퍼와 씨름하는 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또한 각종의 요체까지도 정확히 읽어낸다. 그야말로 ‘마음도둑’이다.

이 노련한 ‘마음도둑’은 2000년 초반부터 SERICEO 홈페이지를 통해 경제·경영은 물론 문화 예술 인문 등 CEO들에게 맞춤형 온라인 지식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촌각을 다투며 살아가는 경영자들의 학구열이란 열정을 채워줄 만한 마땅한 창구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인문학적 상상력 신배가치창조의 핵... 북 리딩멘토 주축으로 인문서 독파

학구열에 불타는 경영자들을 해갈시켜주는 ‘마음도둑’의 업무는 온라인에서 끝나지 않았다. 다방면에 촉각을 들이대는 경영자들의 오프라인 만남을 지속시키던 연구소 측은 자연스럽게 공식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Wine&Culture, 시애라詩愛羅 등은 각각

와인을 통해 글로벌 문화를 익히고, 등산과 시를 통해 감성을 키우는 뜻에서 꾸려진 SERICEO 내 커뮤니티다. 지난달부터 독서 커뮤니티가 추가됐다. 르네상스 시대 문예부흥의 중추역할을 했던 메디치 가문에서 착안해 모임 이름을 '메디치21'로 정했다. 메디치 가문이 인문교양을 폭넓게 장려했던 것처럼 21세기 경영자인 CEO들도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며 르네상스 못지않은 신斷 가치창조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희망이 담긴 이름이다. 이례적이게도 이 독서모임은 인문서를 읽는 CEO 커뮤니티다.

"저도 인문학을 해야 먹고사는데 혼자 배우기가 어렵더라고요.(웃음) 지난 60년간 개발의 역사는 모방의 역사였잖습니까. 외국 제품을 수입해서 똑똑한 공대생들이 몇 가지 기능만 추가하면 좋은 제품이 돼 나왔죠. 그러나 이제 더 커피할게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없죠. 인문학은 이런 상황에서 독자의 마음을 훔칠 묘법을 담은 돌피구입니다. 새로운 가치창조를 핵심으로 두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역시 인문학적 상상력이죠."

경제·경영은 필수품, 인문학은 사치품이란 고정관념을 버리자고 주장하는 강 상무는 그러나 "인문학은 솔직히 말해 어렵다"고 솔직한 속내를 내비친다. 경제·경영 서적은 CEO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텍스트이고 워낙 쉽게 설명돼 나오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만 인문학은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평면적이어서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이다. 이것이 강 상무가 부담스럽고 난해한 인문학의 숲을 함께 걸어보자고 '선동'한 이유다. 준비시간만 1년 이상이 들었다는 메디치21 커뮤니티의 핵심은 "이 어려운 텍스트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는가?, 누구에게 북멘토 혹은 리딩멘토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는가?"였다.

"일하다가 자연스레 알게 된 정진홍 씨가 생각났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사람인데 인문학에 워낙 관심이 많잖아요. 북멘토로 적합한 인물이었지요. 바로 의기투합하여 우선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 그리고 평면적인 인문학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소개해 보자는 두 가지 방침을 정했습니다. 해당 도서의 내용뿐 아니라 그 텍스트의 시대 사회적 배경 그리고 부차적인 다른 정보들까지 아우른 이른바 통합교과형 독서 프로그램을 부탁했지요"

'글리니케' 자문위원이 책 선정, 8월 2일 첫 모임 100여 명 참석

지난 8월 2일은 메디치21 모임의 본격적인 서막이 열린 날이었다. 첫 모임인데도 100여 명의 CEO들이 참석해 《스트라디바리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LG 김정만 사장, 금호전기 박영구 부회장, 대림산업 한주희 사장 등 굵직한 인사들이 여럿 참석한 가운데 약 40여 분 간 정진홍 교수의 책 설명이 있었고, 약 20분간 토론이 진행됐다. 다수의 CEO들은 전설적인 현악기 명인인 스트라디바리의 생애와 그의 걸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텍스트를 "크리에이티브의 가치를 일깨워준 책"으로 평가했다.

"이 책의 주제는 완벽에 대한 충동, 차이의 능적이라고 봅니다. 완벽한 명품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이가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명품은 조그만 차이가 능적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리 와인 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란 동명의 제품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MP3 하나를 만들어도 베이밍이 중요하

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국내 유명 CEO들이 읽는 책이니만큼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는 작업도 꽤 간간한 편이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각 분야 전문가 모임인 '글리니케'가 선정위원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강 상무 표현에 따르면 글리니케 멤버들은 그 분야에선 최고라 불리는 인물들이다. 이 모임의 이름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첩보전을 하며 은밀한 협상장구를 두고 있었을 때 최고의 브레인 파워를 자랑하는 정보원들을 비밀리에 교환하던 다리 '글리니케'에서 가져왔다. 그 다리가 암흑 속에서 한줄기 희망의 소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각 분야 고수들은 이 커뮤니티를 통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알리고 소통해 보려고 한다. 고수들이라 해서 현학적인 설명을 하는 건 아니다. 책을 추천해 주고 독서 강연을 준비하는 정진홍, 한근태, 이현우, 박재희 씨 등은 "이 텍스트를 어떻게 쉽게 잘 풀어내줄까"를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책 협찬 내서는 출판사도 ... 기업 차원의 인문학 분야 지원방안도 생각

한편 독서모임 창단 소식을 들은 몇몇 출판사에선 CEO들이 읽을 만한 책을 협찬해 주었다. 강 상무는 이런 출판사들은 일반적인 홍보나 협찬 차원이 아니라 CEO들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CEO들은 좋은 책을 읽어서 좋고, 출판사 측은 자사책을 CEO, 나아가서는 그 CEO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까지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물론 협찬요청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락하는 건 아니다. 안목 높은 글리니케 멤버들이 쓸모 있는 책이라고 판단했을 때 수락할 수 있다. 그동안 '메디치가 이야기', 《잠들기 전 10분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 등이 협찬을 받은 책들이다.

인문학을 새로운 가치창조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CEO들이 오랫동안 가뭄에 굶주린 인문학계에 '지원'이라는 단비라도 내리려나 내심 궁금해 하는 이들도 있다. 강 상무 역시 긍정적이다. 그러나 강 상무는 "회수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무조건 인문학이라고 지원하진 않을 겁니다.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쉽고 재미있게 대중과 소통하는 인문학이라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인문학도 시장 지향, 고객 지향적으로 가면서 크리에이티브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하는 CEO들이 많습니다."

메디치21의 두 번째 모임은 9월 7일로 예정돼 있다. 본래 한 달에 두 번 모임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올해 말까진 적응 기간으로 정해두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 두 번째 모임에서 읽을 책은 《체인징 마인드》. 강 상무 표현에 따르면 마음의 변화를 유도해 세상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데, 벌써부터 강 상무를 비롯해 CEO들은 모임에 대한 기대로 팍차 있고, '준비된 명강사들' 역시 어서 빨리 내 차례가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

취재 김창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